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 속	수산연구본부	성명	백준혁	직급	전문연구원
			성명	강한애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FTA이행지원센터 운영」(정부대행)* (사업기간 : 2026.01.01. ~ 2026.12.31.)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 제6조 3항에 의거 FTA 체결국 수산업 현황, 수급, 교역 동향 조사 분석을 위한 현지 방문 실시					
출장기간	2026.08.03(월) ~ 2026.08.09(일)			출장지	멕시코(멕시코 시티)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교통
	08.03(월)	부산(10:40) → 서울(14:30) → 로스엔젤레스(14:28) → 멕시코시티(19:30)		항공 이동		KE1408 KE0017 KE7955
	08.04(화)	오전: CICESE		연구기관 인터뷰		도보
		오후: Grupomar		생산·수출 업체 인터뷰		
	08.05(수)	오전: ASIPONA Ensenada		정부기관 인터뷰		차량 이동
		오후: CONAPESCA		정부기관 인터뷰		
	08.06(목)	오전: La Nueva Viga		수산시장 현장 조사		차량 이동
		오후: El navegante		유통업체 인터뷰		
	08.07(금)	오전: IMIPAS		연구기관 인터뷰		차량 이동
		오후: SEPESCA		정부기관 인터뷰		
08.08(토)	멕시코시티(07:00) → 로스엔젤레스(13:00) → 서울(19:35) → 부산(20:45)		항공 이동		KE7956 KE0018 KE1409	
08.09(일)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FTA 체결국(멕시코) 주요 수산물(참다랑어, 해파리 등) 생산·유통 관련 현지 정보 파악 ○ 주요 성과 - 멕시코 수산 업체 및 정부 기관 면담 조사를 통해 수산업 생산·교역 동향 파악 - 멕시코 수산시장 현장 조사를 통한 현지 수산물 소비 및 유통 동향 파악 - 멕시코의 對한국 수산물 수출 동향 및 향후 전망 조사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계획 - 센터 발간물 등을 통한 정보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해양수산부 요청시 관련 내용 제공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08.04.(화) 수산 연구기관 인터뷰																																												
수행계획	□ (오전) CICESE(바하칼리포니아주 엔세나다 과학연구 및 고등교육센터) 인터뷰 - 참 석 자 : Dr. Clara Elizabeth Galindo, Dr. Oscar Sosa Nishizaki, Dr. Manuel Acosta, (CICESE 연구원), Dr. Daniel Pech Pool(ECOSUR 연구원), Dr. Fernando Aranceta Garza, Dr. Fausto Valenzuela Quinonez (CIBNOR 연구원), Dr. Victor Manuel Vidal Martinez(CINVESTASV 연구원),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통역사 등 10명 - 인터뷰 질문 · 기관현황: CICESE의 주요 연구 분야 및 해양과학·수산 분야 담당 역할 · 수산자원 현황: 멕시코 주요 수산자원의 변화 및 지속가능한 관리 관련 연구 동향 · 양식업 현황: 멕시코 양식업 생산 동향 및 주요 양식 품목 관련 연구 현황 · 수산물 공급망: 멕시코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구조와 관련한 연구 또는 정책 자료 현황 · 對한국 교역 증가 가능성: 멕시코 수산물의 한국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행결과	□ CICESE 기관 개요 - 1973년 멕시코 연방정부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으로 특히 해양과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음 - 주요 연구 분야는 해양생태계, 수산자원, 기후변화, 해양환경, 연안 관리, 양식업 등임 □ 멕시코 수산물 생산 동향 -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멕시코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엘니뇨 현상 등으로 어획량이 일부 변화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한류가 유입되어 연간 생산량이 한국에 비해서는 일정한 수준으로 보임 - 특히 멕시코의 주요 어획 품목은 정어리, 주요 양식 품목은 새우임 - 멕시코 17개 주 해안에 인접해서 14개에 계측하는 연구소가 있으며 연구선 5척(태평양 4척, 대서양 1척)으로 상업적 어종이 총 88개 종에 대해 자원 평가 및 관리하고 있음 <멕시코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톤 <table><thead><tr><th>연도</th><th>CAPTURA</th><th>ACUACULTURA</th><th>NACIONAL</th></tr></thead><tbody><tr><td>2016</td><td>1,344,386</td><td>388,833</td><td>1,733,219</td></tr><tr><td>2017</td><td>1,750,304</td><td>404,551</td><td>2,154,855</td></tr><tr><td>2018</td><td>1,764,112</td><td>395,537</td><td>2,159,649</td></tr><tr><td>2019</td><td>1,580,234</td><td>306,563</td><td>1,886,797</td></tr><tr><td>2020</td><td>1,599,009</td><td>351,002</td><td>1,950,011</td></tr><tr><td>2021</td><td>1,679,535</td><td>249,412</td><td>1,928,947</td></tr><tr><td>2022</td><td>1,806,447</td><td>292,388</td><td>2,098,835</td></tr><tr><td>2023</td><td>1,485,563</td><td>304,731</td><td>1,790,294</td></tr><tr><td>2024</td><td>1,845,060</td><td>349,526</td><td>2,194,586</td></tr><tr><td>2025</td><td>1,816,879</td><td>389,560</td><td>2,206,439</td></tr></tbody></table> 자료: 2025 양식 및 어업 통계 연감, CONAPESCA	연도	CAPTURA	ACUACULTURA	NACIONAL	2016	1,344,386	388,833	1,733,219	2017	1,750,304	404,551	2,154,855	2018	1,764,112	395,537	2,159,649	2019	1,580,234	306,563	1,886,797	2020	1,599,009	351,002	1,950,011	2021	1,679,535	249,412	1,928,947	2022	1,806,447	292,388	2,098,835	2023	1,485,563	304,731	1,790,294	2024	1,845,060	349,526	2,194,586	2025	1,816,879	389,560	2,206,439
연도	CAPTURA	ACUACULTURA	NACIONAL																																										
2016	1,344,386	388,833	1,733,219																																										
2017	1,750,304	404,551	2,154,855																																										
2018	1,764,112	395,537	2,159,649																																										
2019	1,580,234	306,563	1,886,797																																										
2020	1,599,009	351,002	1,950,011																																										
2021	1,679,535	249,412	1,928,947																																										
2022	1,806,447	292,388	2,098,835																																										
2023	1,485,563	304,731	1,790,294																																										
2024	1,845,060	349,526	2,194,586																																										
2025	1,816,879	389,560	2,206,439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멕시코 양식 기술 동향 - 멕시코에도 양식 기술 중 바이오플락이 소개되었으나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대부분 기존의 방식으로 양식되고 있음 - 새우 양식은 준집약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오플락 적용이 어려우며, 틸라피아의 경우 집약식 방식으로 바이오플락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 □ 멕시코 수산자원 관리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 수역 지정, 자원량 측정을 통한 남획 우려 어종 검토, 어획 금지 수역 및 어획 금지 어종 지정 등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IMIPAS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ONAPESCA가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업무②	08.04.(화) 멕시코 주요 수산물(참치) 가공 및 수출 업체 인터뷰
수행계획	□ (오후) Groupomar 기업 인터뷰 - 참 석 자 : Javier Diaz Lopez(Groupomar 임원),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통역사 등 4명 - 인터뷰 질문 · 기업현황: GrupoMar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수산물 관련 사업 구조 · 생산·가공 현황: 만사니요(Manzanillo) 공장의 주요 생산 품목 및 통조림 제품 생산 현황 · 유통 현황: 주요 생산·가공 수산물의 멕시코 내 유통 구조 · 수출입 현황: 주요 수산물의 수출 품목, 수출 대상국 및 수출 방식 · 대한민국 수출 가능성: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 경험 또는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
수행결과	□ GrupoMar 업체 개요 - GrupoMar사는 설립된지 1960년대에 설립된 수산업체로, 참치의 어획부터 가공, 유통, 판매 및 수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임 - 보유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는 Tuny, Ancla, Captian Nemo, Martuna 등이 있으며, 계열사인 Nanomar를 통해 포장재(통조림용)를 직접 생산하고 있음 - 만사니요 지역에 위치한 가공공장에는 3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약 5억 캔의 참치 통조림과 월 300톤의 냉동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함 □ 참치 생산 - 멕시코 참치 업체는 약 6-7곳 정도로 총 45척의 어선이 있는데, 본사는 6척의 선망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200톤 규모의 선단임 - 멕시코의 참치 어획량은 연간 20만 톤 수준으로 주로 동태평양 수역 멕시코의 영해 및 공해에서 어획하고 있으며, 본사는 멕시코 어획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함 - 멕시코의 참치 어획 품종은 황다랑어가 대부분이고 가다랑어도 일부 어획되고 있는데, 참다랑어는 고급어종으로 규제가 많아 다량 어획되지는 않고 있음 - 멕시코 참치 어획은 IATTC(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연간 약 64일 간의 금어기를 제외하고 연중 어획되고 있음 - 참치 어획 외에 축양 생산이 약 5천 톤 수준으로 일부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음 □ 참치 가공 및 유통 - 본사의 제품은 통조림이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10%는 냉동·냉장품이며, 통조림 제품 생산량은 통조림이 연간 약 1천만 상자(상자당 48캔) 수준임 - 본사의 제품은 내수용이 80%, 수출용이 20%로, 내수용은 물 통조림이 더 많고 수출용은 기름 통조림이 더 많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유통 경로는 생산 거점인 마사틀란 항에서 만사니요의 시설에서 창고 보관 혹은 가공이 이루어지며, 만사니요에서 바로 수출되거나 과달라나를 통해 멕시코 전역으로 유통됨 - 생산에서 판매까지 소요 기간은 여획이 약 1달, 창고 보관이 3달, 가공 및 유통이 2달로 총 6개월 가량이 소요됨 □ 참치 교역 및 한국 수출 - 멕시코산 참치는 대부분 내수용에 집중되고 있으며, 공급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4만 톤을 수입하고 있음 - 본사의 주요 수출 시장은 스페인,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시장이 주력이며, 미국,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동남아산 등과의 가격 경쟁으로 유럽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짐 - 한국은 경쟁사가 많아 진출이 어려운 시장이며, CPTPP 등 협정 체결 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오히려 경쟁이 더 심화될 가능성도 높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업무③	08.05.(수) 수산물 물류·유통 현황 관련 정부 관계자 인터뷰
수행계획	□ (오전) ASIPONA Ensenada(바하칼리포르니아 엔세나다) 항만청 인터뷰 - 참 석 자 : Amador Arteaga Sahagun(ASIPONA Ensenada 관계자),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통역사 등 4명 - 인터뷰 질문 · 기관현황: ASIPONA Ensenada의 주요 역할 및 엔세나다항 운영·관리 업무 · 항만 물류 현황: 엔세나다항의 주요 물동량, 수산물 취급 현황 및 물류 인프라 · 수산물 수출입 현황: 엔세나다항을 통한 주요 수산물 수출입 품목, 대상국 및 교역 동향 · 수산물 공급망: 수산물의 항만 반입, 보관, 통관, 선적 등 수출입 물류 절차 · 對아시아 교역 현황: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해상운송 및 수산물 교역 현황 · 항만 인프라: 수산물 수출입 지원을 위한 냉장·냉동 보관, 콜드체인 및 물류시설 현황
수행결과	□ ASIPONA 기관 개요 - ASIPONA는 멕시코 연방정부 산하의 항만 운영기관으로, 엔세나다항을 비롯한 주요 한만의 운영과 개발, 항만 인프라 관리, 물류 및 해상운송 지원, 국제 무역 촉진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 6개 항만(태평양측 5개, 캘리포니아만 측 1개)를 관리하고 있음 - 항만은 일반 화물, 컨테이너 화물, 광물 및 농산물 벌크화물, 크루즈, 해양 관광, 조선 산업, 어업, 기타 물류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ASIPONA 관리 항만>  자료: ASIPONA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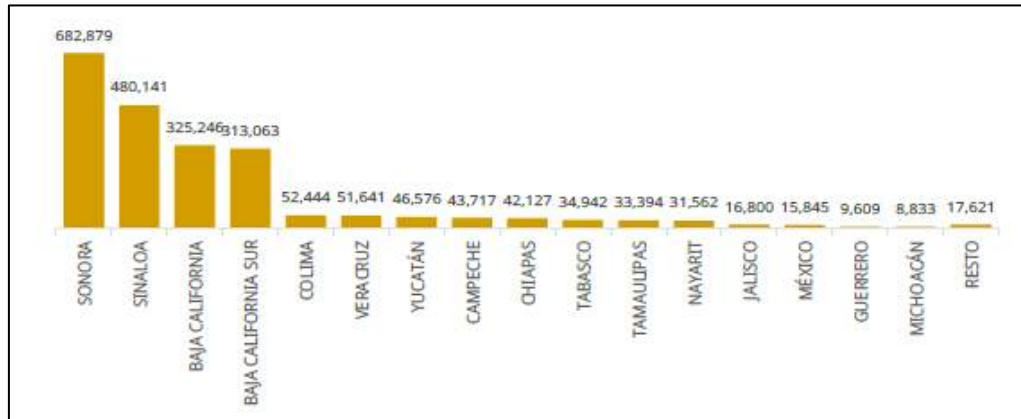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엔세나다항 물동량 및 크루즈선 동향 - 물동량은 멕시코 전체의 25% 수준으로 5위 규모의 항만이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중심 항만임 - 2025년 기준 엔세나다항의 전체 물동량은 442만 톤으로 2017년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컨테이너 213만 톤, 석유 및 석유 제품 109만 톤, 일반 화물 48만 톤, 광물 45만 톤, 수산물 19만 톤, 기타 7만 톤 수준임 - 2026년 6월 누적 기준 엔세나다항의 전체 물동량은 306만 톤으로, 석유 및 석유 제품 161만 톤, 컨테이너 94만 톤, 광물 20만 톤, 일반 화물 18만 톤, 수산물 6만 톤, 기타 6만 톤 수준임 - 2025년 크루즈선 입항 건수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360건으로, 승객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35만 명임 - 2026년 크루즈선 6월 누적 기준 입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02건으로, 승객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74만 명임
업무④	08.05.(수) 수산물 양식 및 어업 관련 정부 관계자 인터뷰
수행계획	□ (오후) CONAPESCA(국가 수산양식 및 어업위원회) 인터뷰 - 참 석 자 : Isabel Cristina Reyes Robles(CONAPESCA 직원), Briegel Ortiz(SADER 직원),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통역사 등 5명 - 인터뷰 질문 · 기관현황: CONAPESCA의 주요 역할과 수산·양식 분야 담당 업무 · 수산업 현황: 멕시코 주요 수산물의 생산 및 양식업 동향 · 수산물 수출입·유통 현황: 멕시코 주요 수산물의 수출입, 국내 유통 구조 및 공급망 현황 · 對한국對아시아 수출 동향: 한국 및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현황 및 확대 가능 품목 · 정부 정책: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지원 정책
수행결과	□ CONAPESCA 기관 개요 - CONAPESCA는 멕시코 농림부(SADER) 산하의 행정기관으로 멕시코 어업과 양식업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임 - 본 기관은 멕시코 어업과 양식업 분야의 규제, 수산업 진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수산정책 관련 법률의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있음 □ 멕시코 수산물 생산 동향 - 2025년 멕시코의 수산물 생산량은 221만 톤이었으며, 특히 양식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생산이 감소했던 오징어의 생산이 회복되며 생산이 증가하였음 - 주요 생산 수역은 태평양 연안이 89%를 차지하였으며, 걸프만 및 카리브해 연안은 10%, 내륙 지역은 1%를 차지하였음 - 주요 생산 지역인 소노라주, 시날로아주, 바하캘리포니아주, 바하캘리포니아수르주 네 개 주가 전체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콜리마, 베라크루즈, 유카탄 등 지역들에서 생산이 이루어졌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2025년 멕시코 지역별 수산물 생산량>

단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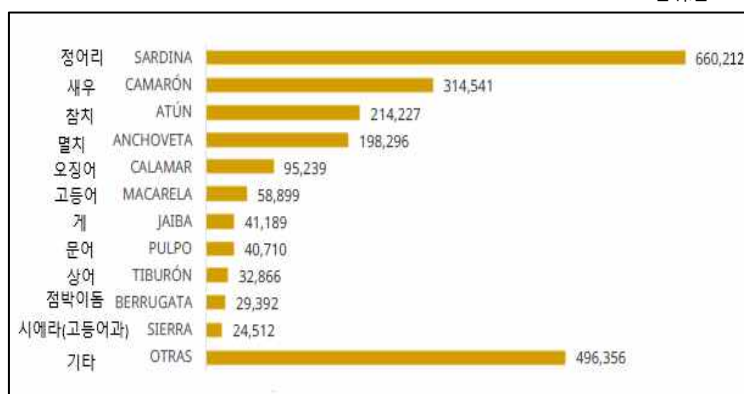


자료: 2025 양식 및 어업 통계 연감, CONAPESCA

- 멕시코의 최대 생산 품목인 정어리는 전체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새우, 참치, 멸치, 오징어까지 5개 어종이 60% 이상을 차지하였음
- 2025년 소형 원양어종이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오징어를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전체 수산물 생산이 증가하였음
- 양식업도 생산 능력과 양식 시설이 확대되며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새우, 게레치(mojarra), 굴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주요 생산 품목 중 해파리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해파리는 소노라주 캘리포니아만 수역에서 주로 어획하고 있음
- 주요 생산 품목 중 국제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어종은 참치로, 멕시코는 지역수산기구 중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와 IATTC(전미열대 참치 위원회) 두 곳으로 어획 쿼터 등 규제를 따르고 있음

<2025년 멕시코 수산물 생산량>

단위:톤



자료: 2025 양식 및 어업 통계 연감, CONAPESCA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⑤	08.06.(목) 수산시장 현장 조사
수행계획	□ (오전) La Nueva Vega 시장 현장 조사 - 참 석 자 : Angel Vega(El Navegante 대표), 통역사,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등 4명 - 현장조사 · La Nueva Vega 시장현황(연혁, 규모 등) · 취급 품목: 주요 취급 수산물의 종류와 수입·국내산 비중 · 유통 및 수입 현황: B2B 유통 구조 및 주요 수입 수산물 품목 · 소비 동향: 멕시코시티 내 업소용·가정용 수산물 수요 변화
수행결과	□ La Nueva Vega 시장 개요 - La Nueva Vega는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Iztapalapa) 지역의 Central de Abasto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멕시코 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유통 거점 중 하나임.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도요스 시장 다음 규모의 대형 수산물 유통시설이라고 함 - 시장 규모는 약 33ha 규모의 시설에 도매창고, 소매창고 및 다수의 판매상이 입점하고 있으며, 멕시코 전역에서 생산·반입되는 어류, 연체류, 갑각류 등 다양한 수산물이 집산되는 곳임 □ 수산물 취급 및 유통 현황 - La Nueva Vega에서는 멕시코 연안 및 내수면에서 생산된 다양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현장조사 시 참다랑어 등 고급 어종을 포함한 다양한 어류와 갑각류, 연체류가 거래되는 것을 확인함 - 시장 내 거래는 경매 방식보다는 도매상·중간상 중심의 개별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가격은 경매를 통해 일괄 형성되기보다는 품목별 반입량, 보관 상태, 창고별 재고 및 거래처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이해됨 - 시장은 멕시코시티 내 레스토랑, 호텔, 소매상,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등으로 수산물을 공급하는 B2B 유통 거점 성격이 강하며, 일부 품목은 일반 소비자 대상 소매 유통도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멕시코 국내산 어류뿐 아니라 연체류와 갑각류의 유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소비 시기인 사순절·부활절 기간에는 수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산물 수입 및 소비 동향 - 현장조사 결과, La Nueva Vega에서는 멕시코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부 수입 수산물도 함께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시장 전체의 수입산 비중이나 품목별 수입 규모는 현장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음 -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내 수산물 소비는 외식업체 중심의 업소용 수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선·냉장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정용 소비 수요도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책 지원 및 시사점 - 현장 인터뷰에서는 La Nueva Vega 시장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멕시코시티 정부의 보건 기관이 성수기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위생 점검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시장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기보다는 수산물 유통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차원의 행정 조치로 볼 수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⑥	08.06.(목) 수산물 유통업체 인터뷰
수행계획	□ (오후) El Navegante(수산물 유통업체) 인터뷰 - 참 석 자 : Diego Duarte(El Navegante 직원), 통역사,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등 4명 - 인터뷰 질문 · 기업현황: El Navegante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수산물 유통 구조 · 취급 품목: 주요 취급 수산물의 종류와 수입·국내산 비중 · 유통 및 수입 현황: B2B 유통 구조 및 주요 수입 수산물 품목 · 소비 동향: 멕시코시티 내 업소용·가정용 수산물 수요 변화
수행결과	□ El Navegante 업체 개요 - El Navegante는 멕시코시티 La Nueva Viga 시장을 기반으로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로,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을 매입하여 외식업체, 호텔, 식자재 업체 등으로 공급하고 있음 - 동 업체는 반입된 수산물을 작업장으로 입고한 후 필렛 가공, 포장, 배송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 작업을 통해 당일 유통을 준비하고 있음 - 직원 수는 작업장 기준 약 80명, 전체 약 150명 규모로 파악되며, 시장 내 유통과 가공·포장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중간 유통업체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수산물 취급 및 가공 현황 - El Navegante는 약 20여 개 어종을 주요 취급 품목으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 국내산 어류와 수입산 어류를 모두 취급하고 있음 - 주요 취급 품목에는 멕시코산 농어, 참다랑어, 칠레산 냉장 연어 등이 포함되며, 이 중 멕시코산 농어는 현지에서 소비가 많은 품목 중 하나로 언급됨 - 칠레산 냉장 연어는 주당 약 3~4톤 수준을 취급하고 있으며, 신선도 확인 시 아가미 상태와 냄새(수박) 등을 통해 품질을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됨 - 멕시코산 참다랑어는 바하캘리포니아주 등 주요 생산지에서 반입되어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고급 수산물 수요에 대응하는 품목으로 파악됨 - 작업장에서는 수산물 입고 이후 필렛 작업과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외식업체 등 거래처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품화하고 있음 □ 유통 및 수입 현황 - La Nueva Viga는 멕시코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하루 약 1,500톤 내외의 수산물이 거래되며 성수기에는 1,500~2,000톤 수준까지 거래된다고 함 - El Navegante는 La Nueva Viga 시장을 기반으로 국내산 수산물과 수입산 수산물을 매입·가공·포장하여 멕시코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현재 주요 사업은 멕시코 내수 유통이며, 수출보다는 국내 외식업체 및 식자재 수요처에 대한 공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수입 수산물의 경우 칠레산 연어와 같이 멕시코 내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국내산 어류와 수입산 어류를 병행하여 유통하는 구조임 □ 소비 동향 및 정부 역할 - 시장 내 거래와 가격 형성은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 유통업체와 거래처 간 수급, 품질, 보관 여건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시장 거래 자체를 직접 규율하기보다는 위생·검역 등 식품 안전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한국 수출 가능성 - El Navegante는 현재 멕시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수산물을 B2B 거래를 중심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 다만 향후 거래 기회가 있을 경우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한국 시장 진출은 품목별 수요, 가격 경쟁력, 물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업무⑦	08.07.(금) 수산 연구기관 인터뷰
수행계획	□ (오전) IMIPAS(멕시코 수산양식연구원) 인터뷰 - 참 석 자 : Jose Alejandro Rodriguez Valencia(IMIPAS 직원), 통역사,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등 4명 - 인터뷰 질문 · 기관현황: IMIPAS의 주요 연구 분야 및 해양과학·수산 분야 담당 역할 · 수산자원 현황: 멕시코 주요 수산자원의 변화 및 지속가능한 관리 관련 연구 동향 · 양식업 현황: 멕시코 양식업 생산 동향 및 주요 양식 품목 관련 연구 현황 · 수산물 공급망: 멕시코 수산물 생산·유통·수출 구조와 관련한 연구 또는 정책 자료 현황 · 對한국 교역 증가 가능성: 멕시코 수산물의 한국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행결과	□ IMIPAS 기관 개요 - IMIPAS는 멕시코 농업농촌개발부(SADER)에 소속된 공공분권 연구기관으로, 수산·양식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 혁신, 기술이전 및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동 기관은 기존 INAPESCA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관으로, 멕시코 수산·양식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IMIPAS는 새우, 참치, 상어, 꽃게, 조개류, 홍합, 민대구, 정어리, 해삼 등 약 90개 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상업적 가치가 높은 약 50개 어종은 수출과 연계되고 나머지 약 40개 어종은 국내 소비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됨 - IMIPAS는 자원 평가 결과와 관련 지표를 어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료로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 현장의 자원 이용 및 관리 판단을 지원하고 있음 □ 멕시코 수산자원 및 생산 동향 - 태평양 수역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태평양 수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참치 및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참치류의 경우 IATTC의 어획쿼터 등 국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원량 또는 어획 가능성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생산 확대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수온 상승이 수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역과 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멕시코 수산물 생산은 어종별 자원 변동성이 크며, 특히 특정 어종은 해류, 바람, 수온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어획량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됨 □ 해파리 및 오징어 생산 동향 - 해파리는 특정 시기에만 어획이 가능한 품목으로, 어획 시기와 해양환경 조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현장 인터뷰에 따르면 해파리 자원량은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어획 시기에는 별도의 어획량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설명됨 - 멕시코에는 해파리를 전문적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 있으며, 캘리포니아만(Gulf of California)에서 어획되는 해파리가 주로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반면 멕시코만에서 어획되는 해파리는 생산량이 많지 않아 수출보다는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임 - 오징어의 경우 멕시코가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성이 큰 품목으로 평가됨 □ 멕시코 양식업 동향 - 멕시코의 주요 양식 품목은 새우, 틸라피아, 굴류, 황다랑어 등이며, 그 외에도 문어, 해삼, 가다랑어, 이매패류, 조개류 등에 대한 실험적 양식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멕시코 수산업은 전통적으로 어로어업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양식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내륙 양식의 경우 멕시코의 건조한 기후와 물 부족 문제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안 양식은 높은 전기요금, 환경오염 우려,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멕시코 정부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어로어업에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식업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음 - 다만 어로어업과 양식업은 생산 방식과 어업인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존 어로어업 중심 구조에서 대규모 양식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수산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 IMIPAS는 수산자원 평가를 위해 자체 조사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오징어 자원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샘플 확보에도 조사선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참치, 상어 등 상업적 어획이 이루어지는 어종에 대해서는 상업 선단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실제 어획량과 자원 동향을 추산하고 있음 - 이러한 조사 방식은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자원 상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상업어업 현장의 어획 정보를 활용하여 자원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로 볼 수 있음 □ 한국 시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 캘리포니아만에서 어획되는 해파리는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어, 한국 시장과의 교역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판단됨 - 오징어는 한국 수요가 큰 품목이나 멕시코의 생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치 및 참다랑어는 생산 증가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수산물시장의 쿼터 규제가 적용되므로, 단순히 어획량 증가만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멕시코 수산물의 對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 안정성, 자원관리 체계, 국제 규제, 냉동·가공·물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업무⑧	08.07.(금) 주정부 산하 수산·양식업 전담 기관 인터뷰
수행계획	□ (오후) SEPESCA(Baja California 주정부 산하 수산·양식업 전담 기관) 인터뷰 - 참 석 자 : Rogelio Cano Cetina(SEPESCA 직원), 통역사, 강한애·백준혁 전문연구원 등 4명 - 인터뷰 질문 · 기관현황: CONAPESCA의 주요 역할과 수산·양식 분야 담당 업무 · 수산업 현황: Baja California 지역의 주요 수산물 생산 및 양식업 현황 · 수산물 유통·수출입 현황: 멕시코 주요 수산물의 내수 유통 구조 및 소비, 수출 품목, 수출대상국 및 교역 동향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대한민국 수출 가능성: 한국 시장으로의 수출 경험 또는 향후 수출 확대 가능 품목
수행결과	□ SEPESCA 기관 개요 - SEPESCA는 바하캘리포니아주 정부 산하의 수산·양식업 전담 기관으로, 지역 수산업 및 양식업의 진흥, 생산 기반 개선, 수산물 유통·상업화 지원,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바하캘리포니아주는 태평양과 캘리포니아만에 접한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멕시코 내 주요 수산물 생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되며, SEPESCA는 지역 수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국내외 시장에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공식자료에 따르면 바하캘리포니아주는 멕시코 수산물 생산의 약 16%를 차지하며, 2024년에는 총 353,035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전국 3위를 기록하였음 □ 바하캘리포니아주 수산물 생산 동향 - 바하캘리포니아주의 수산물 생산은 어획어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생산량 353,035톤 중 어획 생산량은 343,051톤으로 약 97%를 차지하였음 - 주요 생산 품목은 정어리, 멸치, 참치, 민어류 등이며, 2024년 기준 정어리 생산량은 214,803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멸치도 84,328톤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반면 양식업은 생산량 기준으로는 아직 비중이 크지 않으나, 참다랑어, 패류 등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바하캘리포니아주의 수산물 생산이 최근 해양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엘니뇨 등으로 인한 수온 변화와 용승(upwelling) 조건 변화가 일부 어종의 자원량 및 어획량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 다만 용승은 일반적으로 차갑고 영양염이 풍부한 심층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으로, 바하캘리포니아 연안 생산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생산 감소 원인을 용승 자체로 보기보다는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용승 강도와 생태계 조건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해양환경 변화와 자원관리 대응 - 바하캘리포니아 연안은 캘리포니아 해류와 용승의 영향을 받는 고생산성 해역이나, 최근 기후변화, 수온 상승, 해양열파 및 엘니뇨 등으로 인해 일부 자원과 해양생태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SEPESCA 및 관련 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해양 대형해조류 숲, 즉 바다숲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연안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 기반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됨 □ 수산물 유통 및 수출 동향 - 인터뷰에 따르면 바하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내수와 수출 시장에 모두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은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SEPESCA는 바하캘리포니아주의 수산물이 48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시장에는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됨 - 참치류의 경우 바하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축양된 참다랑어 등 고급 어종이 일본 등 고가 시장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일부 물량은 미국을 경유하여 항공편으로 일본 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됨 - 해파리의 경우 바하캘리포니아 자체 생산품이라기보다는 소노라주 등 캘리포니아만 연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품목으로, 어획 후 가공 과정을 거쳐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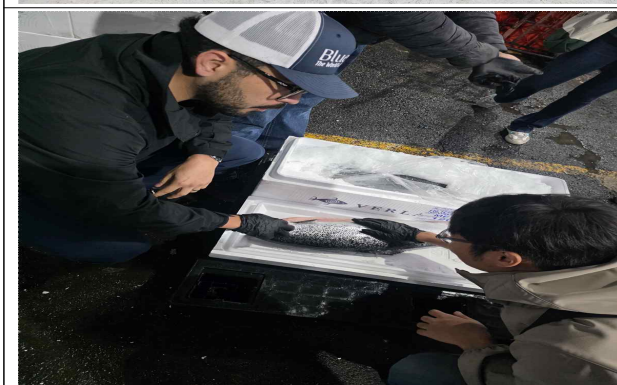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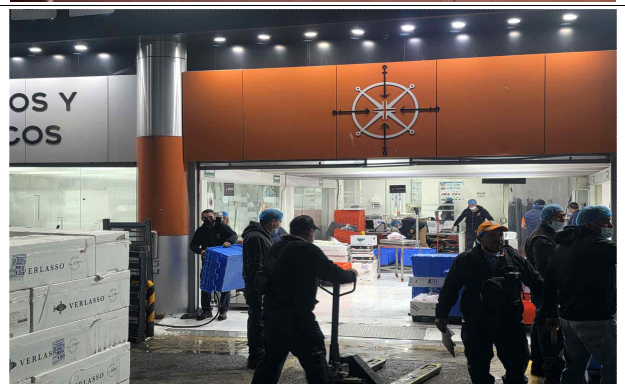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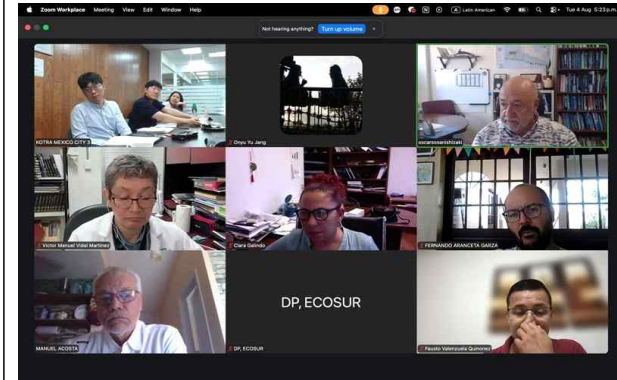
	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해파리의 엔세나다항 경유 여부와 부산 도착 이후 일본·중국 재수출 여부는 현장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공식 통계나 항만자료를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주요 품목별 교역 특성 - 해파리는 주로 소노라주 연안에서 3~5월 전후로 어획되는 계절성 품목이며, 생산량 변동성이 큰 것으로 파악됨 - 해파리 어업은 연방정부의 허가 및 IMIPAS-CONAPESCA의 자원 평가 및 관리에 따라 운영되며, 최근에는 최소 포획 크기 설정 등 관리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음 - 오징어는 바하캘리포니아주, 소노라주 등에서 주로 어획되는 품목으로 설명되었으며, 현장 인터뷰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다고 언급됨 -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등 북미 지역 내 교역 여건과 인접 시장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음 - 문어의 경우 유카탄반도의 마야문어는 유럽 시장으로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바하캘리포니아에서는 얼룩문어류(Pulpo Manchalo)가 어획되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바하캘리포니아 문어 생산 규모는 공식 자료상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인터뷰 중 언급된 대규모 수출 물량은 수치 재확인 필요함 □ 한국 시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 바하캘리포니아주는 멕시코 내 주요 수산물 생산지이자 태평양 연안의 수출 거점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과의 수산물 교역 확대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 - 특히 해파리, 참치류, 오징어, 패류 등은 한국 시장과 관련성이 있는 품목으로 판단되며, 품목별 생산 안정성, 수출 경로, 위생·가공 시설, 물류 여건 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파리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 경험이 있는 품목으로 파악되나, 생산 지역이 주로 소노라에 집중되어 있어 바하캘리포니아주의 역할은 생산지라기보다 가공·물류·수출 경로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SEPESCA는 부산 EXPO 참석 등 한국과의 교류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산물 교역, 유통·가공, 자원관리 및 해양환경 대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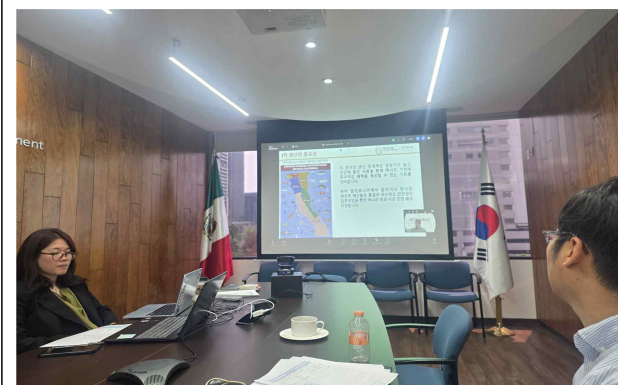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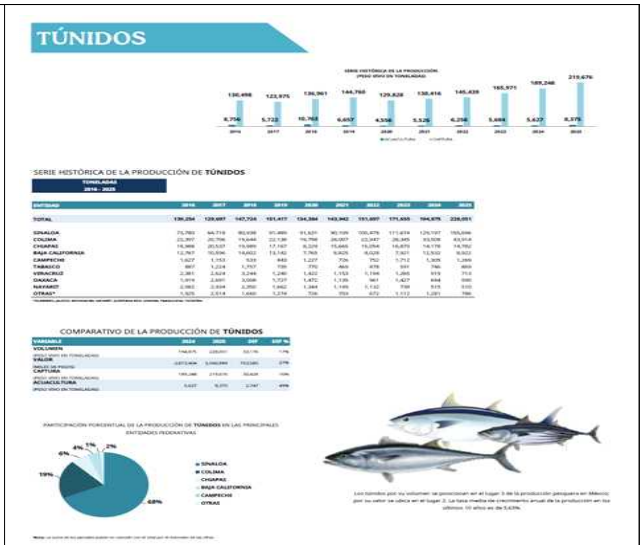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별첨1] 인터뷰 및 현장조사 사진





[별첨2] 방문 기관 제공 자료



2025년 멕시코 양식 및 어업 통계연감



바하 캘리포니아의 어업 및 양식업 부문과 그 수치



태평양과 코르테스 해에 접한 1,555km가 넘는 해안선은 어업 및 양식업과 같이 주의 경제, 사회 및 지역 발전에 중요한 활동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어업과 양식업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가족들

13,415

어업과 양식업에 간접적으로 의존하는 가족들

58,995



어업 회사와 어업
846개
산업 어업 70개
스포츠 낚시 어업 120개



144 양식 회사



95 어류 및 양식 수산물
가공 공장



GrupoMar 브랜드 제품



엔세나다 항만 전경

SEPESCA 발표 자료



엔세나다 항만 전경